

보도시점 2023. 7. 11.(화) 12:00 배포 2023. 7. 11.(화) 08:30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일·가정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주제별 기획보도를 제공 중이며,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2023.6.16.)’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고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번 ‘인구의 날(7.11)’을 맞아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 변화를 조망하였다.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과 외국인 역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인구·가구

- (인구) 2023년 5천 2백만 명에서 2041년 4천만 명대에 진입, 2070년 3천 8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 전망
- (평균초혼연령) 2022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이며, 2012년 대비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증가
- (혼인경험)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 여자는 67.1%이며, 2010년 대비 남자는 11.8%p, 여자는 10.3%p 감소
- (합계출산율) 2022년 0.78명으로 2012년 1.30명 대비 0.52명 감소
- (기대자녀수) 2020년 1.68명으로 2010년 1.96명 대비 0.28명 감소
- (가구유형) 2021년 친족가구 64.4%, 1인가구 33.4%, 비친족가구 2.2%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 비율은 증가세

2. 일·가정 양립

- **(고용률)** 연령별 남자 고용률과 OECD 회원국 연령별 여자 고용률은 $\cap$ 모양이지만, 연령별 여자 고용률은 2012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M모양 유지
- **(유연근무제)** 남녀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30대에서 활용률이 높음
- **(육아휴직자)** 남자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24.1%를 차지하였고, 남자는 자녀 연령 6~8세, 여자는 자녀 연령 0세 때 많이 사용
- **(가사분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64.7%,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실태는 남편 21.3%, 아내 20.5%임

3. 외국인

- **(외국인비율)**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2%에서 2040년 4.3%로 증가 전망
- **(체류자격)** 재외동포, 유학생은 증가하고,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감소
- **(경제활동)** 2022년 외국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94.0%이며,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광업·제조업이 43.9%로 가장 많음
- **(다문화가구)** 2021년 다문화가구는 전체 가구 중 1.7%,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가구원 중 2.2%를 차지
- **(외국인 수용도)** 2022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5.3점(10점기준, 높을수록 수용적)이며, 직장동료로 수용 비율(42.3%)이 가장 많음

이형일 통계청장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하여 2024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2-481-1283)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202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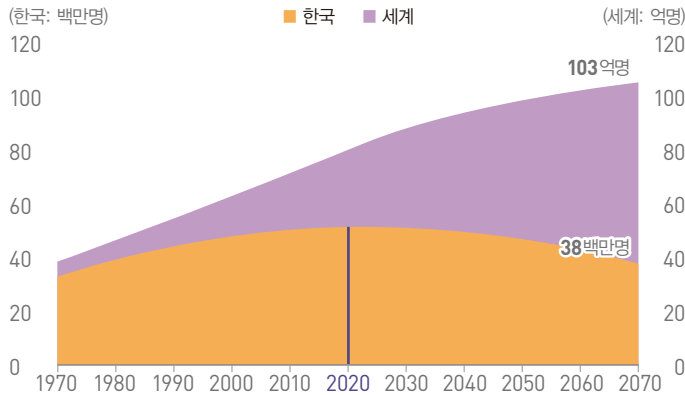
일 러 두 기

- ☐ 통계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된 보도자료로, 각 통계에 따라 가능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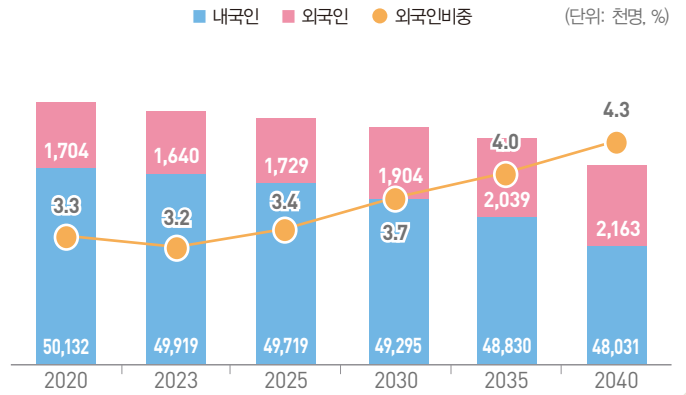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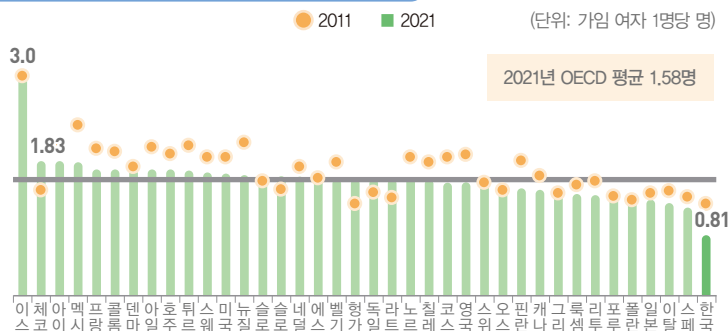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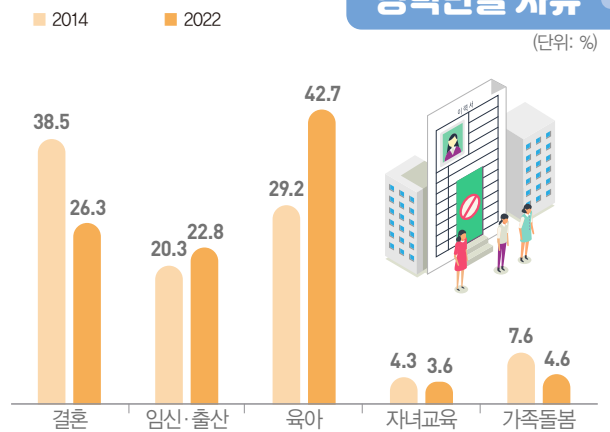
내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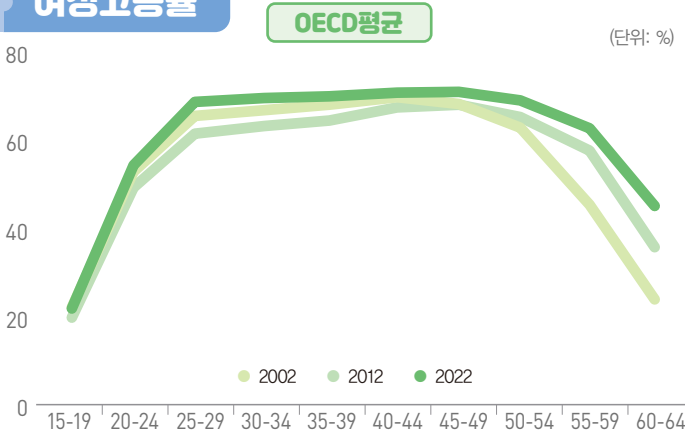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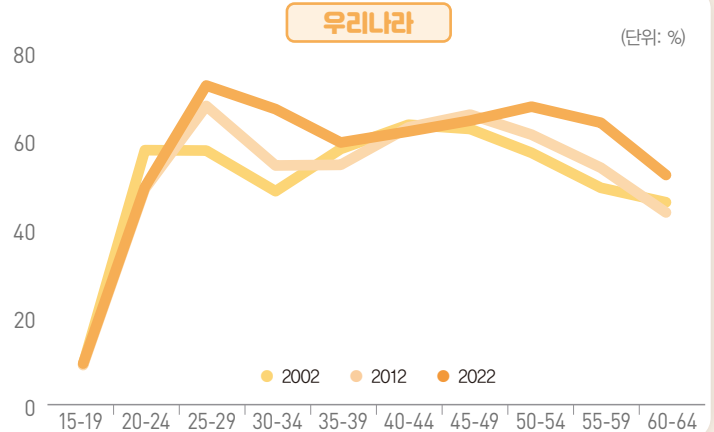
경력단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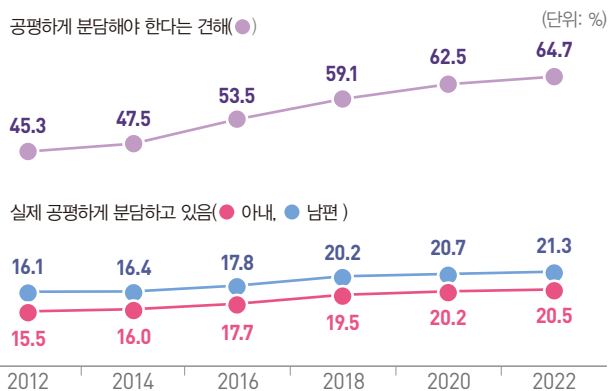
여성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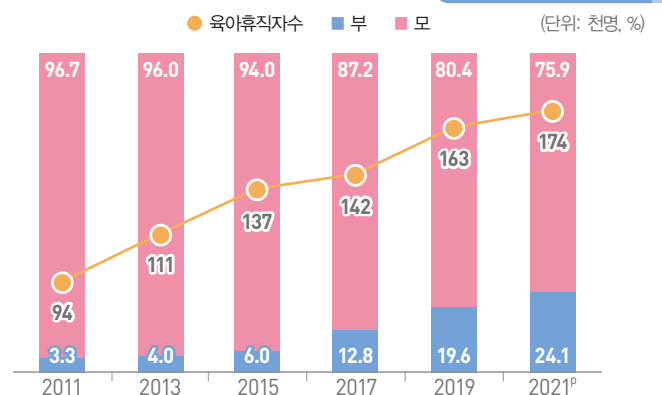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사분담



육아휴직자



목 차

I. 인구와 가구	1
II. 일 · 가정 양립	7
III. 외국인	14
[참고] 주요 용어 설명	19

I. 인구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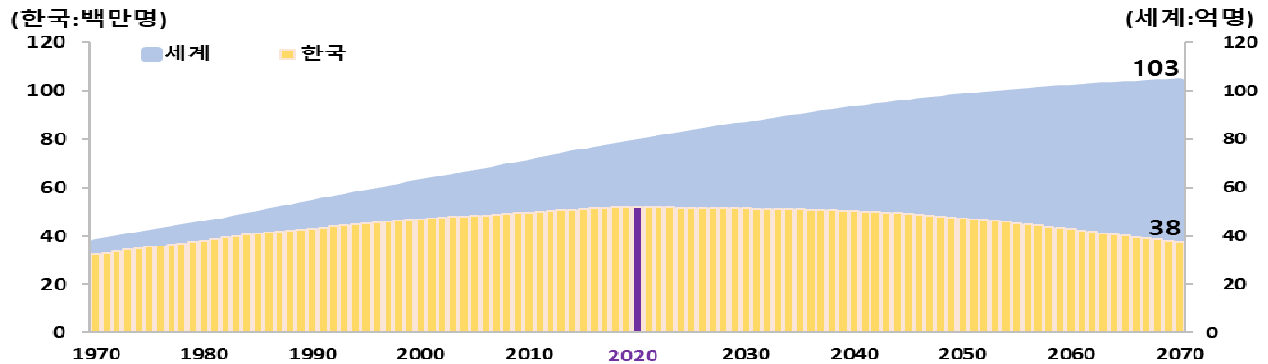
1. 인구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 5천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세계 인구는 2037년에 90억 명, 2058년에 100억 명을 돌파하고 2070년에는 103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41년에 4천만 명대에 진입하여 2011년 규모로 회귀하고, 2070년엔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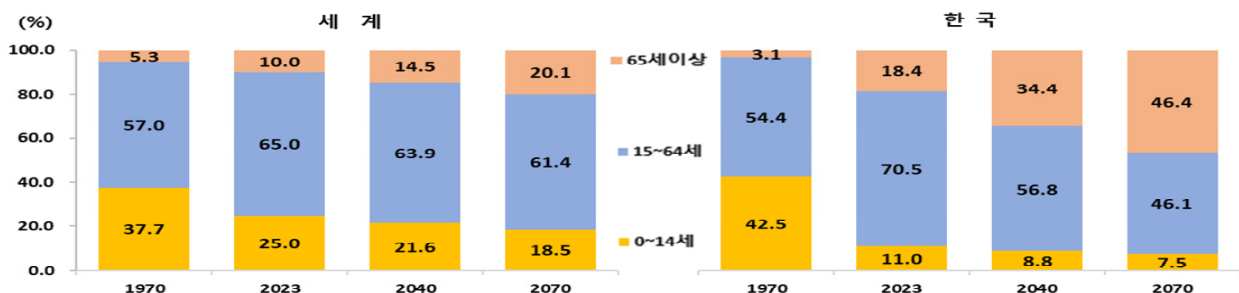
□ 2023~2070년 기간 중 세계의 인구는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변화는 세계보다 급격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의 유소년인구는 25.0%에서 18.5%, 우리나라는 11.0%에서 7.5%로 각각 6.5%p, 3.5%p 감소

○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65.0%에서 61.4%, 우리나라는 70.5%에서 46.1%로 각각 3.6%p, 24.4%p 감소

○ 세계의 고령인구는 10.0%에서 20.1%, 우리나라는 18.4%에서 46.4%로 각각 10.1%p, 28.0%p 증가

<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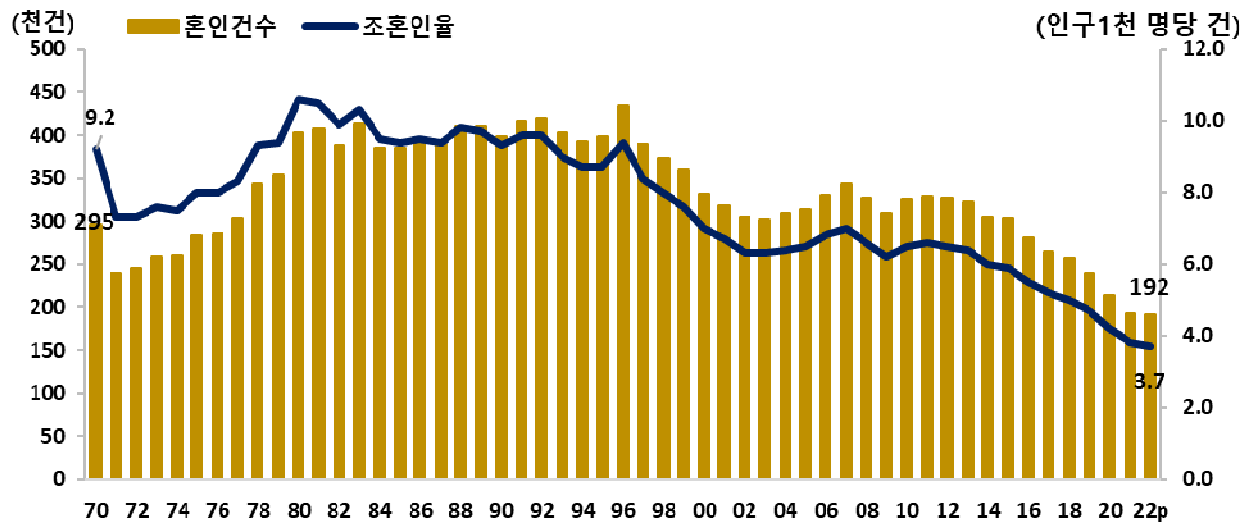
2. 혼인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 2천 건, 조(粗)혼인율은 3.7건이며,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2.5세 차이

□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29만 5천 건에 비해 10만 3천 건 감소함

○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3.7건으로, 1970년 대비 5.5건 감소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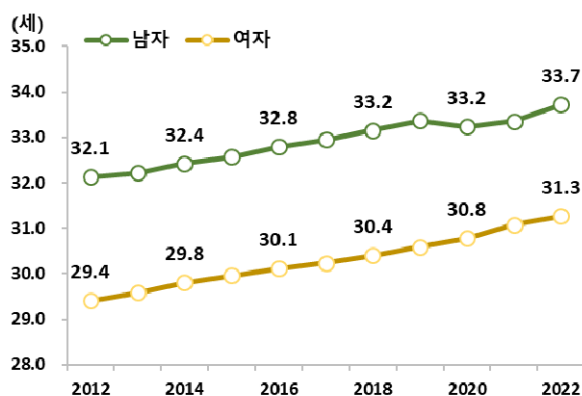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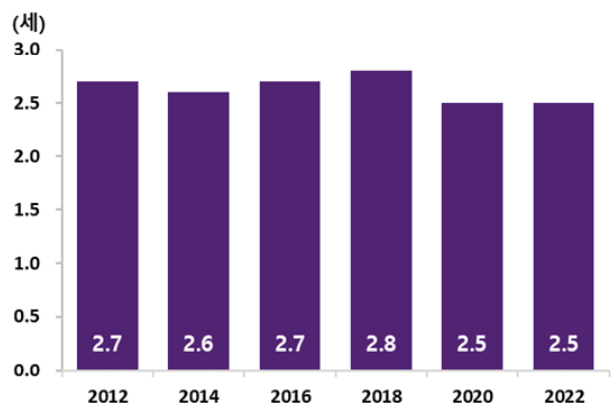
□ 2022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2012년에 비해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상승함

○ 남녀 간의 평균초혼연령 차이는 2.5세로, 2012년(2.7세)에 비해 0.3세 감소

< 성별 평균초혼연령 추이 >



< 남녀 평균초혼연령 차이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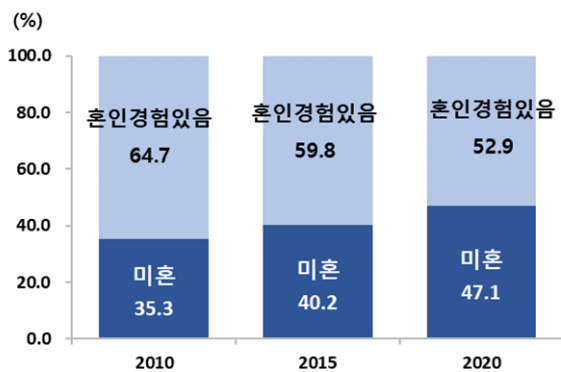
3. 혼인 경험(25~49세)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 여자는 67.1%이며, 2010년에 비해 각각 11.8%p, 10.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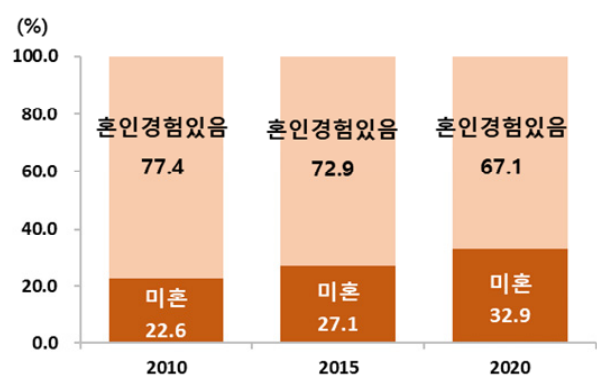
□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이며 여자는 67.1%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면 남자(64.7%)는 11.8%p, 여자(77.4%)는 10.3%p 감소

< 남자 25~49세 혼인상태별 비율 >



< 여자 25~49세 혼인상태별 비율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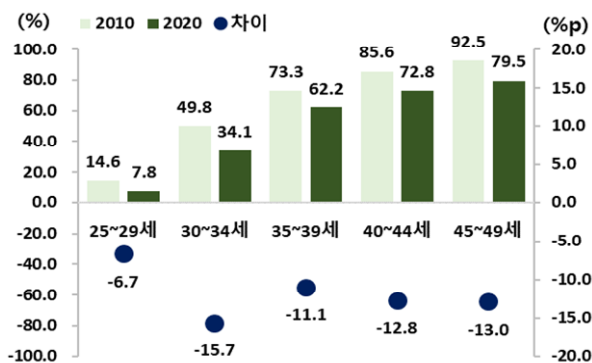
주) 혼인경험있음은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을 의미

□ 2020년 혼인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은 201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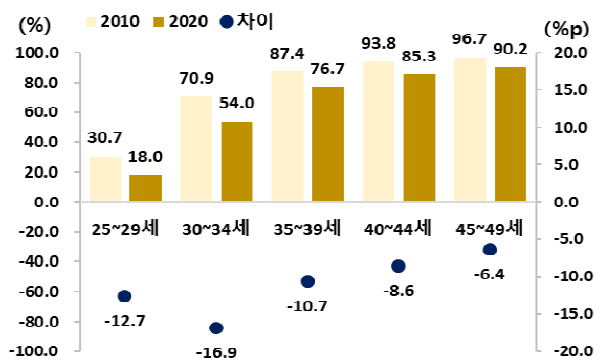
○ 2010년 대비 혼인 경험 비율의 차이를 보면 남자는 30~34세가 가장 많이 감소(-15.7%p)하고 25~29세가 가장 적게 감소(-6.7%p)

○ 여자는 30~34세(-16.9%p)가 가장 많이 감소, 45~49세(-6.4%p)가 가장 적게 감소

< 남자 연령별 혼인 경험 비율 >



< 여자 연령별 혼인 경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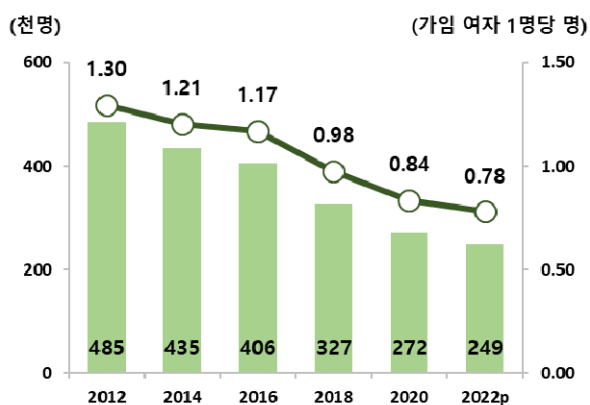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4.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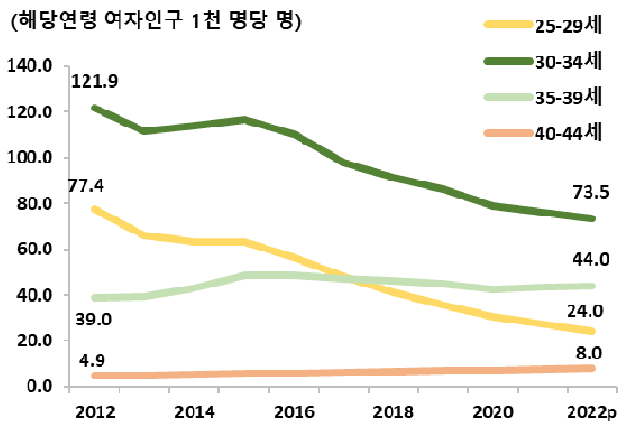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78명

-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이며, '12년 48만 5천 명에 비해 23만 6천 명(-48.6%) 감소함
 -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2년(1.30명)보다 0.52명(-39.9%) 감소
-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73.5명으로 가장 높고, 35~39세가 44.0명, 25~29세가 24.0명, 40~44세가 8.0명 순으로, 2012년에 비해 25~29세(-53.4명), 30~34세(-48.4명)는 감소, 35~39세(5.0명), 40~44세(3.1명)는 증가함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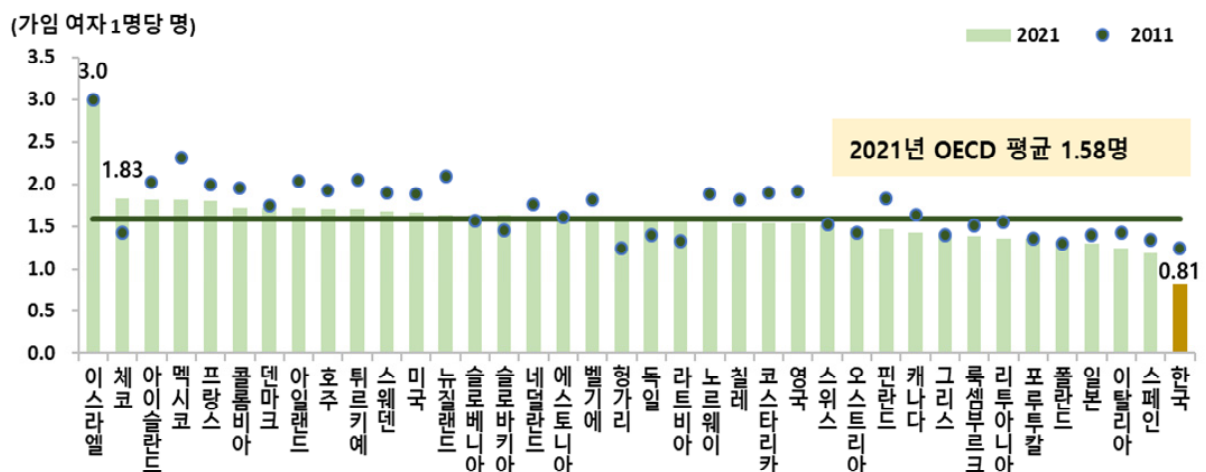


<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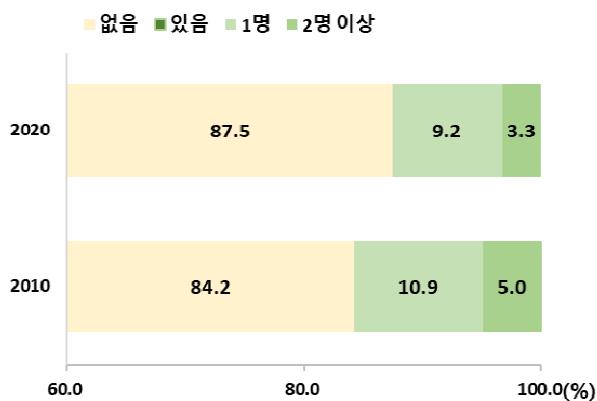
출처: OECD, 「Family Database」

5. 자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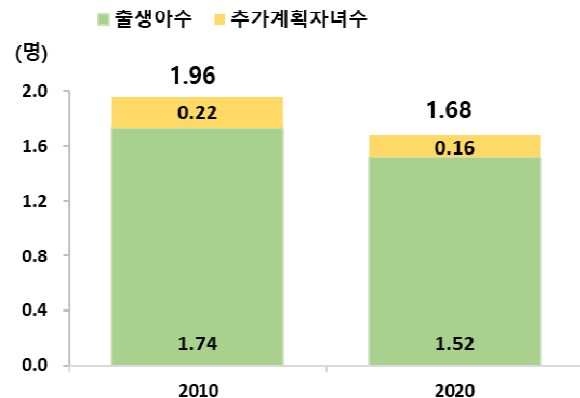
2020년 기혼여성(15~49세)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2.5%, 기존 자녀와 추가계획자녀 수를 합한 기대자녀 수는 1.68명

- 2020년 15~49세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 규모와 비율은 75만 6천 명 (12.5%)으로, 2010년(121만 5천명, 15.8%)에 비해 45만 8천명(-3.3%p) 감소함
- 2020년 추가계획자녀 수는 0.16명으로 2010년(0.22명) 대비 0.06명 감소 하였으며, 기대자녀수도 1.68명으로 2010년(1.96명) 대비 0.28명 감소

< 기혼여성(15~49세) 추가자녀 계획 >



< 기대자녀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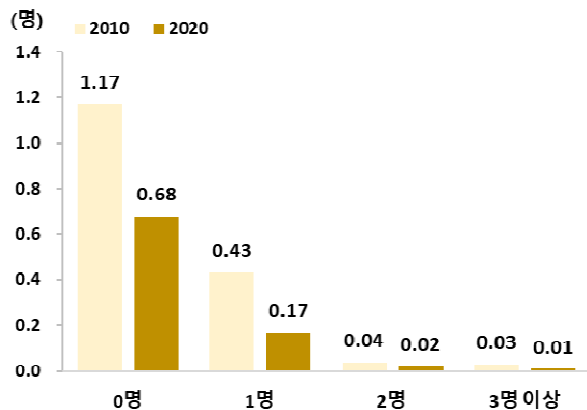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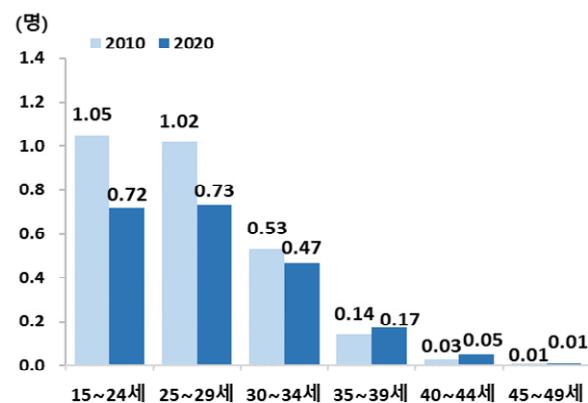
주) 기대자녀 수 = 출생아 수 + 추가계획자녀 수

- 2020년 기준 출생아 수가 0명인 기혼여성(15~49세)은 0.68명의 추가자녀계획이 있으며, 출생아 수가 1명인 경우는 0.17명, 2명인 경우 0.02명, 3명인 경우는 0.01명으로, 2010년에 비해 모두 감소함
- 연령대별로는 2010년에 비해 15~24세, 25~29세, 30~34세는 감소, 35~39세, 40~44세, 45~49세는 증가

< 출생아 수별 추가계획자녀 수 >



< 연령대별 추가계획자녀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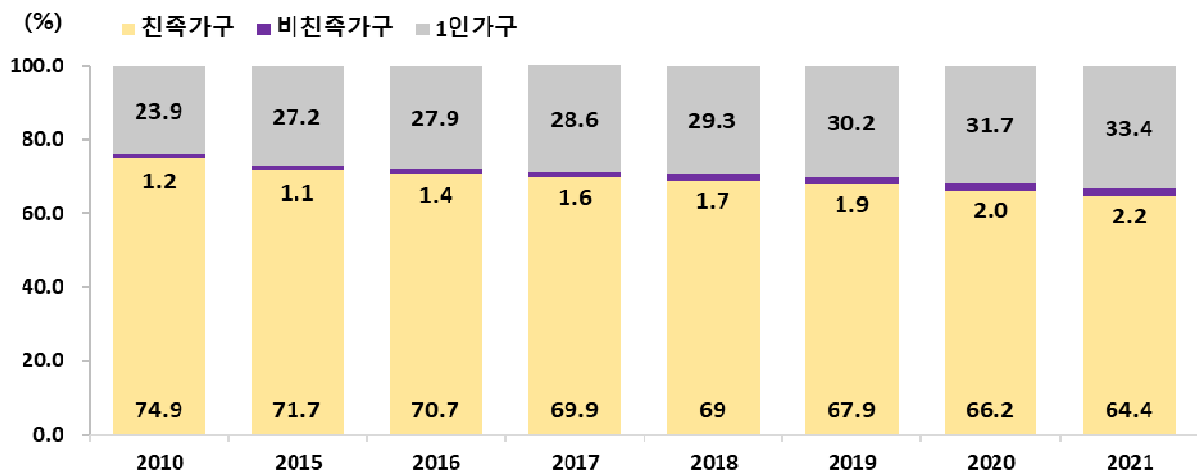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6. 비친족가구, 혼인 외의 자

2021년 비친족가구는 4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이며,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혼인 외의 자 출생은 7천 7백 명으로 2.9% 차지

- 2021년 우리나라 가구유형 비율은 친족가구 64.4%, 1인가구 33.4%, 비친족가구 2.2%로 구성되어 있음
- 친족가구 비율은 감소,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 비율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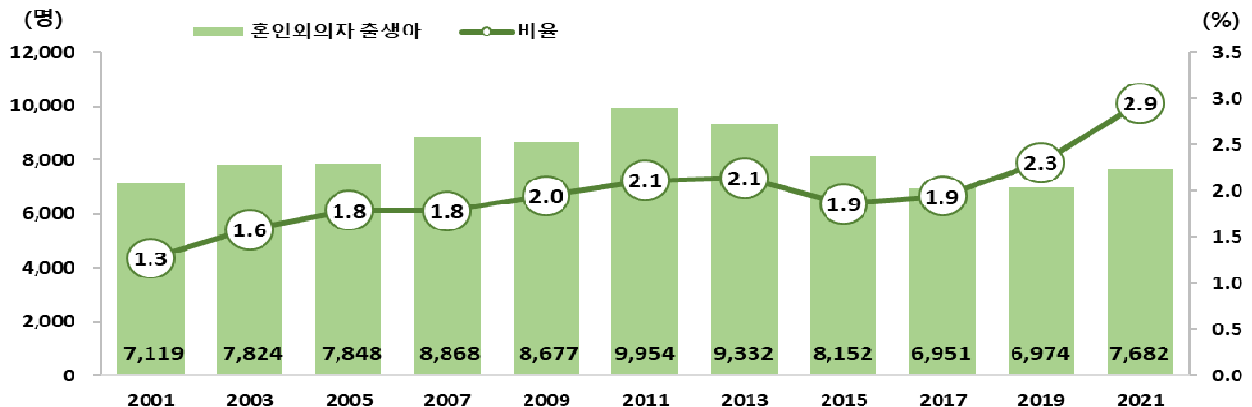
< 가구유형별 비율 추이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 2021년 혼인 외의 자 출생아 수와 비율은 7,682명(2.9%)으로, 2001년 7,119명(1.3%)보다 563명(1.7%p) 증가함

< 혼인 외의 자 출생아 수 및 비율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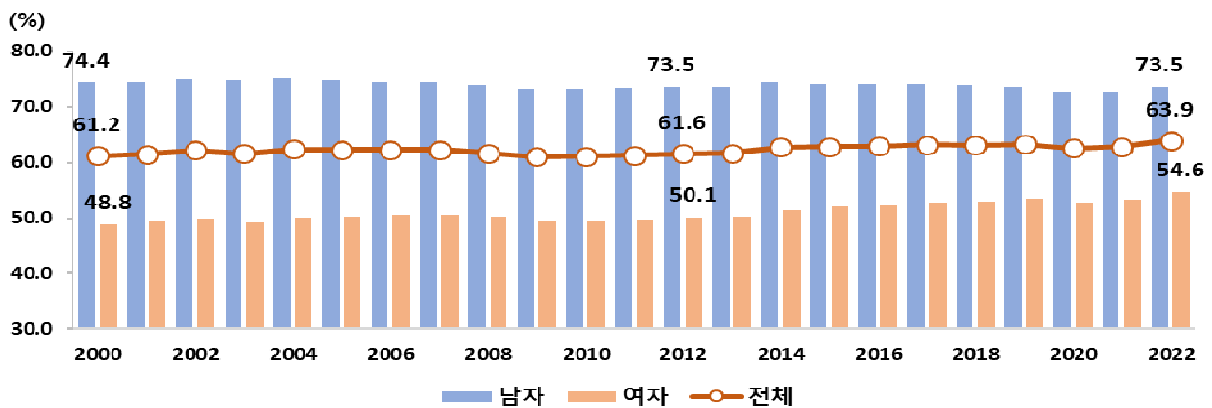
Ⅱ. 일 · 가정 양립

1. 경제활동참가율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3.9%로 2000년 61.2% 대비 2.7%p 상승

- 2022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3.9%이며, 남자 73.5%, 여자 54.6%임
- 2000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1.2%이며, 남자 74.4%, 여자 48.8%로,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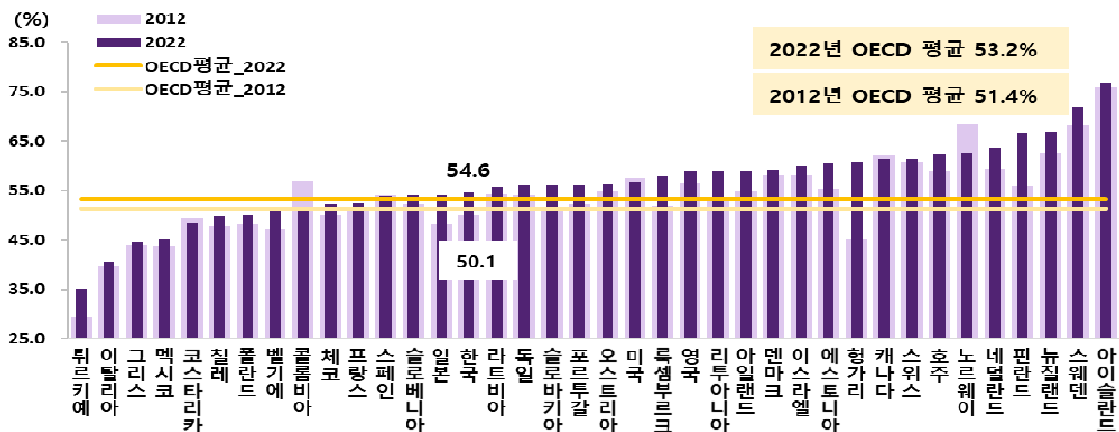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6%이며, OECD 회원국 평균 53.2%보다 높음
- 2012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1%로 OECD 회원국 평균 51.4%에 비해 낮음

< OECD 회원국의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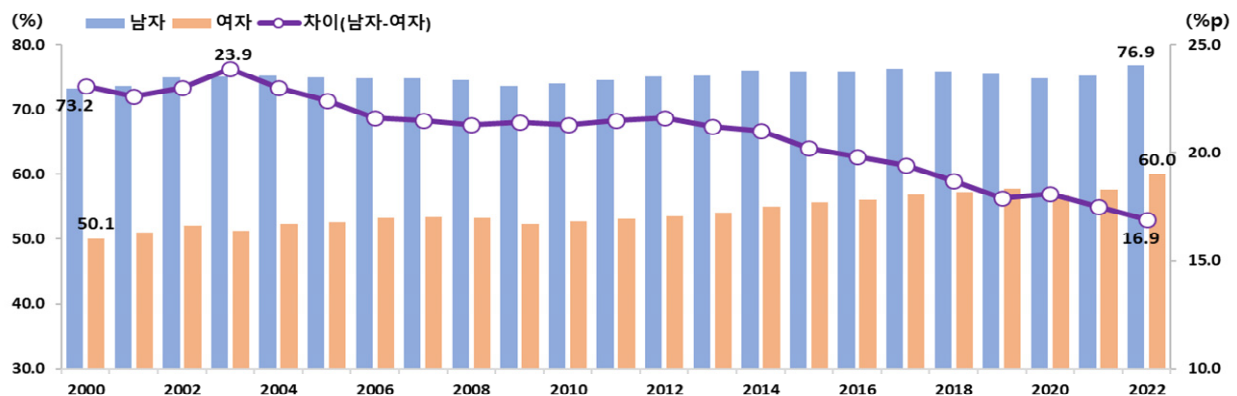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 고용률

2022년 15~64세 남자 고용률은 76.9%, 여자 고용률은 60.0%이며,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15~64세 남자 고용률은 200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여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00년 이후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3년 23.9%p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차이가 줄어들면서 2022년 16.9%p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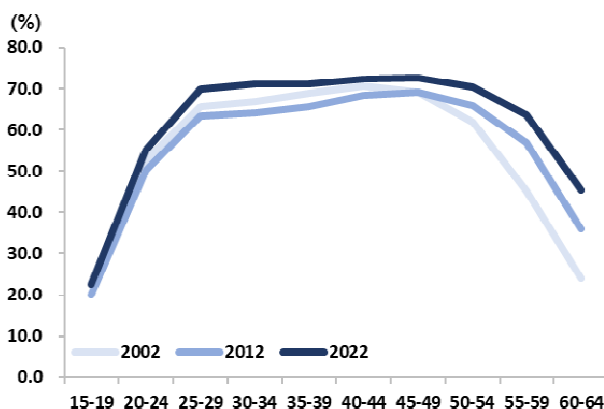
< 성별 고용률 및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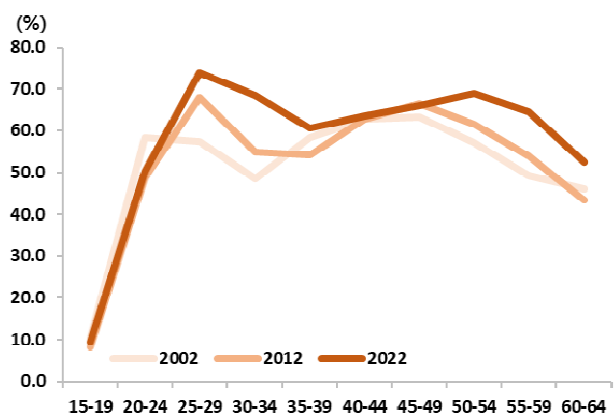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OECD 회원국의 여자 15~64세 연령계층별 고용률은 ∩모양을 보임
- 우리나라 여자 고용률은 M모양이 유지되고 있으며, M자 모양은 2002년 이후 점차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여자 연령계층별 고용률 >



< 우리나라 여자 연령계층별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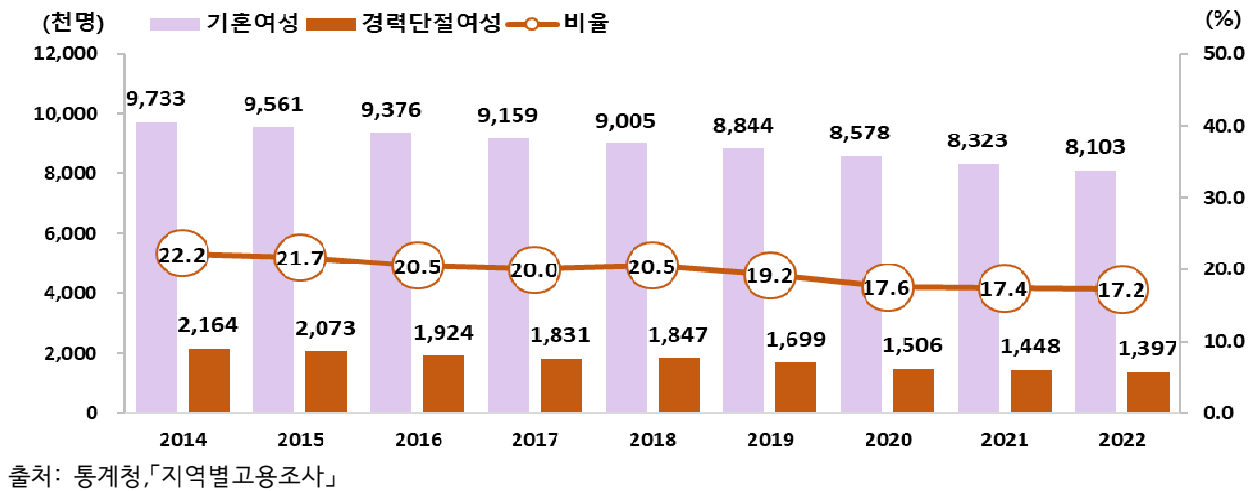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3. 경력단절 여성

2022년 경력단절 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2014년 대비 76만 7천명(-35.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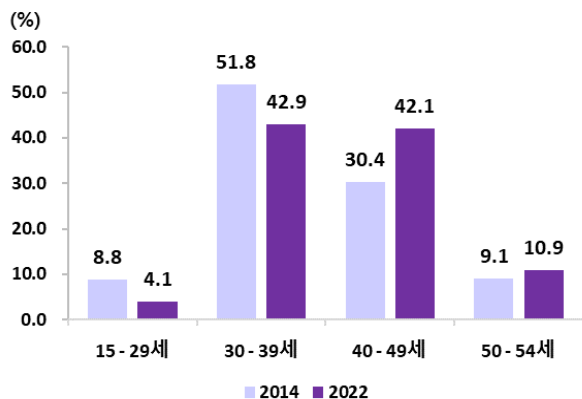
- 2022년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 명이며, 경력단절 여성은 139만 7천 명임
- 2022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5~54세 기혼여성의 17.2%를 차지하였고, 2014년 22.2% 대비 5.0%p 감소

< 15~54세 경력단절 여성 규모 및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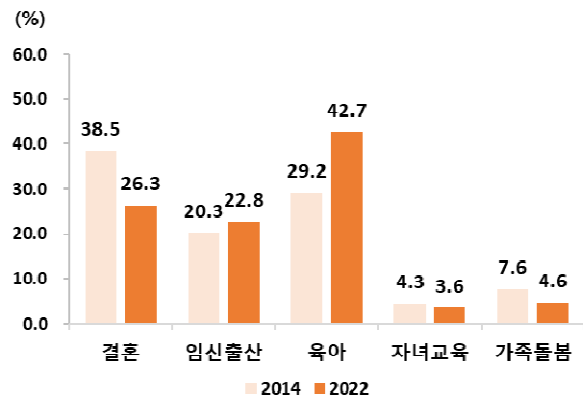


- 2022년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별 비율은 30~39세(42.9%), 40~49세(42.1%) 순으로 높았으며, 2014년 대비 30~39세, 15~29세는 감소, 40~49세, 50~54세는 증가함
-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42.7%)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26.3%), 임신출산(22.8%), 가족돌봄(4.6%), 자녀교육(3.6%) 순

<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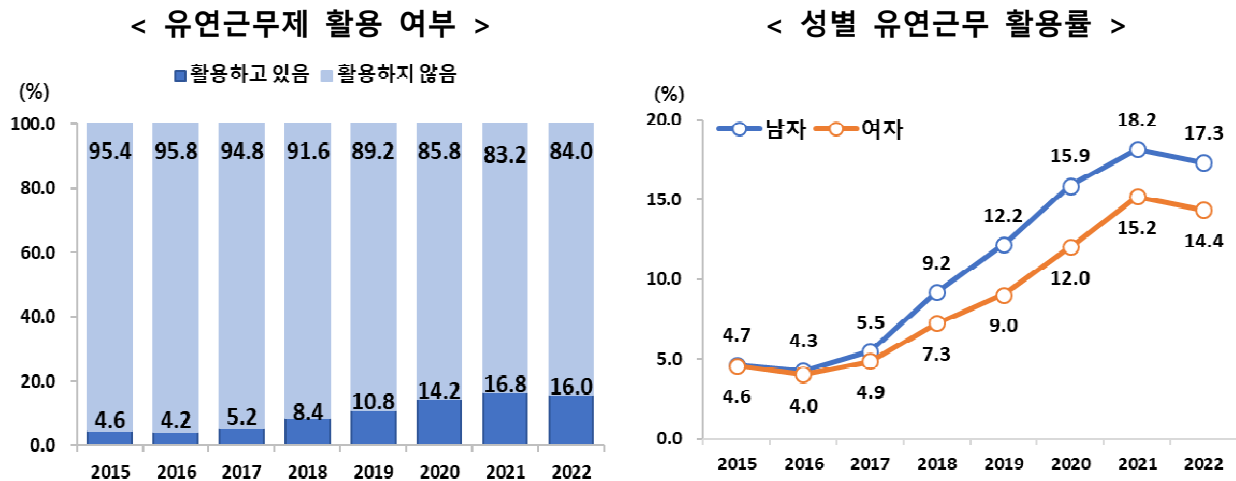
<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



4. 유연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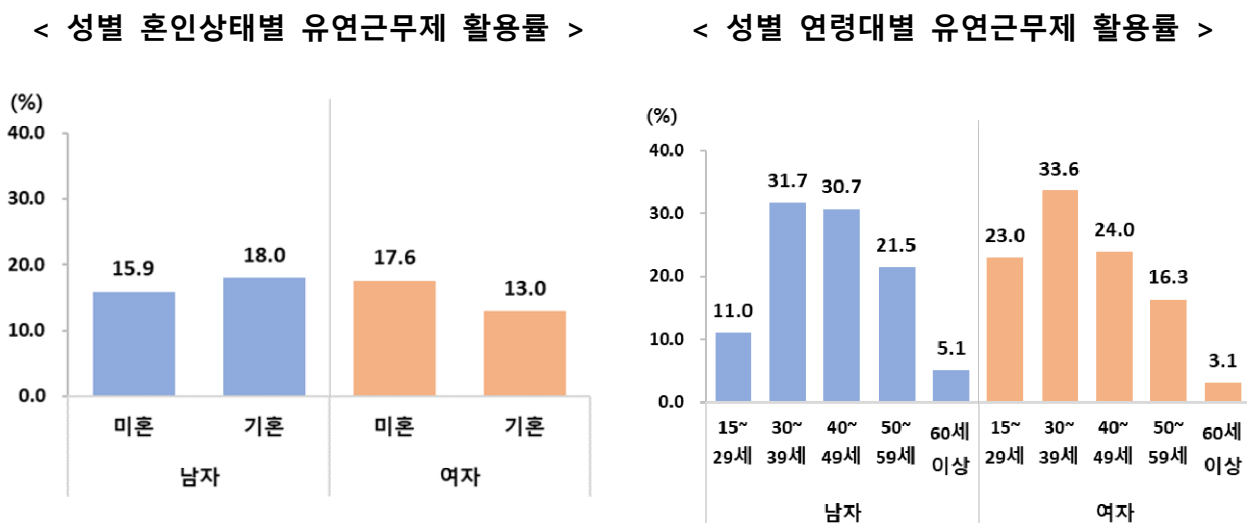
유연근무제 활용은 2015년 4.6%에서 2022년 16.0%로 증가

-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가장 높아졌다가, 2022년에는 약간 감소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2년 유연근무 활용률을 혼인상태별로 보면, 남자는 기혼이 18.0%로 미혼(15.9%)에 비해 1.1%p 높고, 여자는 기혼이 13.0%로 미혼(17.6%)에 비해 4.6%p 낮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보면, 남자 30대 31.7%, 여자 30대 33.6%로, 30대 비율이 남녀 모두 높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집계하여 산출

5.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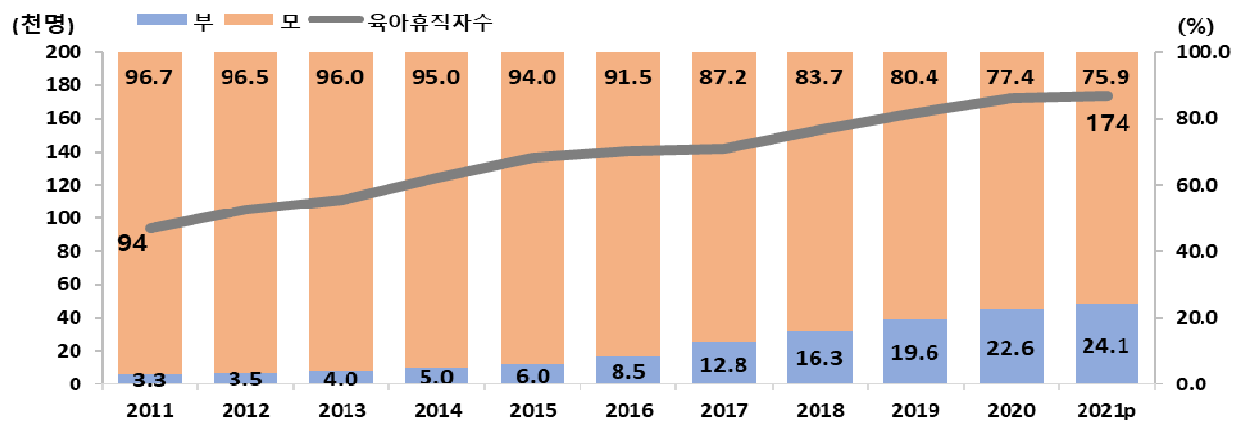
2021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남자 24.1%, 여자 75.9%이며,
여자는 자녀가 0세, 남자는 자녀가 7세일 때 가장 많이 사용

- 2021년 육아휴직자 수*는 17만 4천 명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4만 2천 명, 여자 13만 2천 명으로, 남자 24.1%, 여자 75.9%를 차지함

* 2021년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단 전년도에 시작하여 이어지는 경우 제외)

- 2011년(9만 4천 명)에 비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84.9% 증가하였으며, 남자 비율은 20.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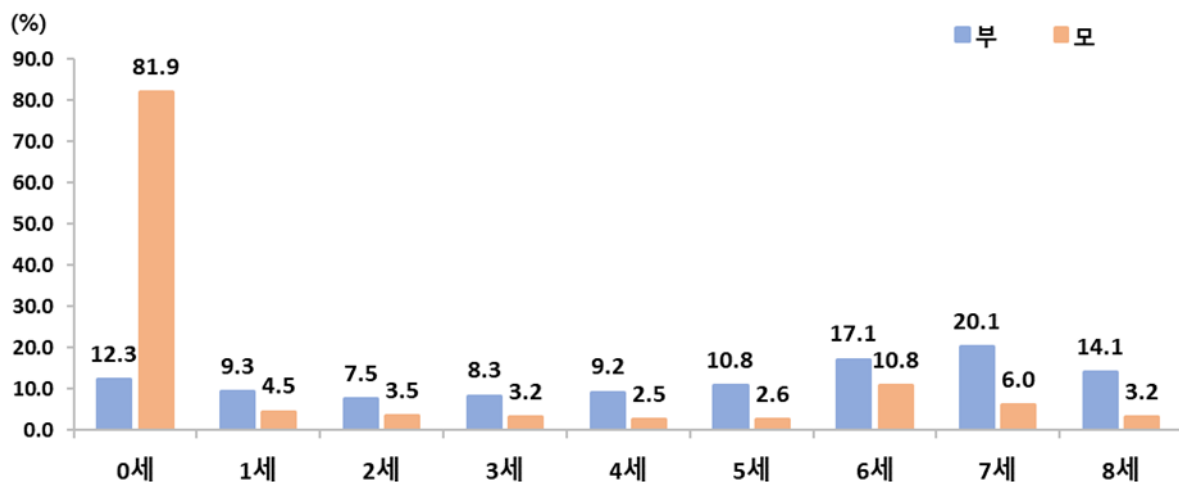
< 육아휴직자 수 및 성별 비율>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 2012년 출생아가 8세가 될 때까지('12~'21년) 1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는 남자는 자녀 연령 7세(20.1%), 여자는 자녀 연령 0세(81.9%)에 가장 많음

< 2012년 출생아 전기간(0~8세) 육아휴직 사용 행태(1자녀 부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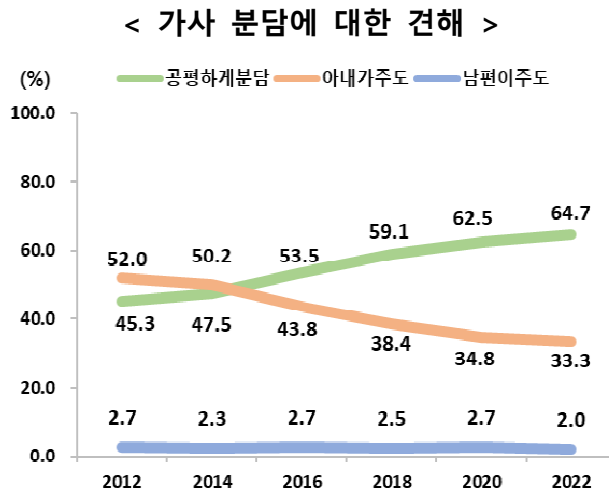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주) 분할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 특성을 반영, 성별 전기간 사용 비율 합이 100.0 이상임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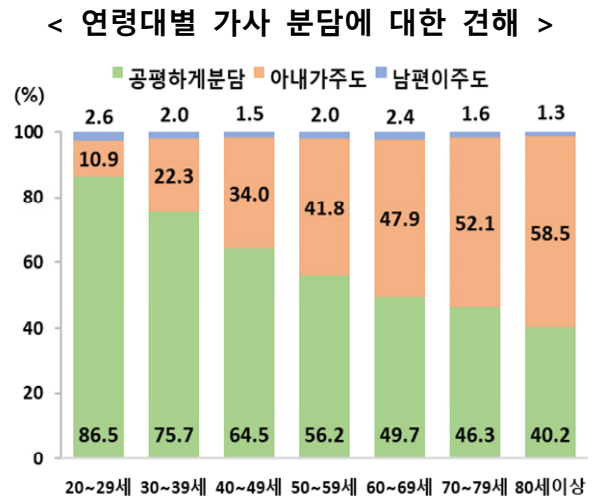
6. 가사분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2022년 64.7%이지만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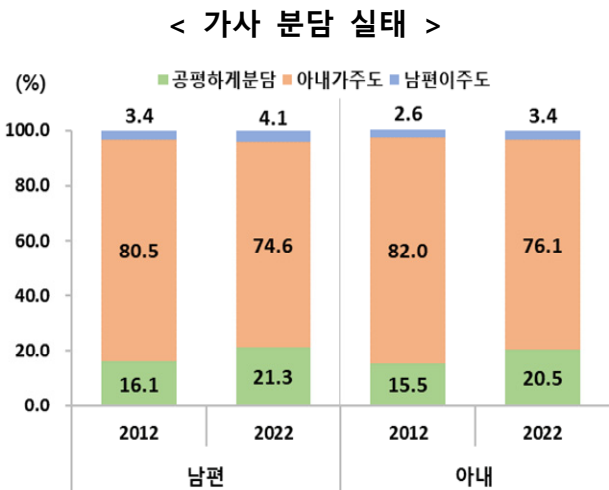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22년 64.7%로 2012년 45.3% 대비 19.4%p 상승함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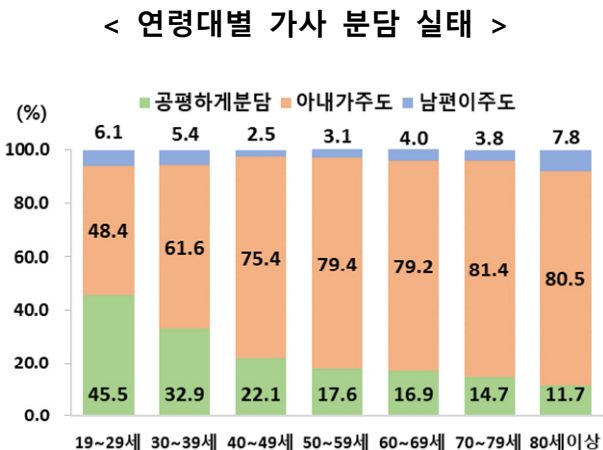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2022년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 21.3%, 아내 20.5%이며, 2012년(남편 16.1%, 아내 15.5%) 대비 증가하였으나,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64.7%)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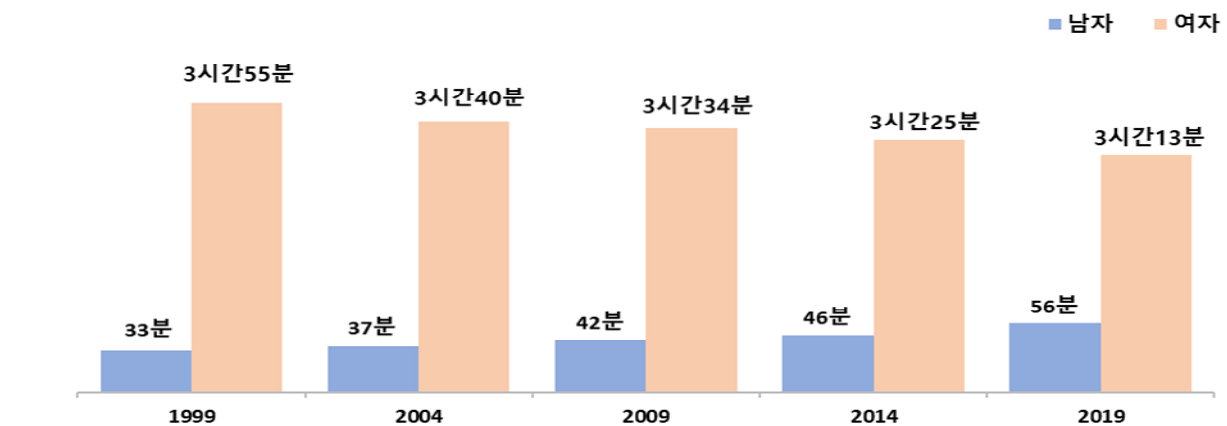


7. 가사노동시간

2019년 성인(19세 이상)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56분, 여자 3시간 13분이며, 맞벌이, 외벌이 가구 모두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음

- 성인(19세 이상) 가사노동시간은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하여, 남자와 여자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감소함
- 2019년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56분 여자 3시간 13분으로, 1999년 남자 33분, 여자 3시간 55분 대비 남자는 23분 증가, 여자는 42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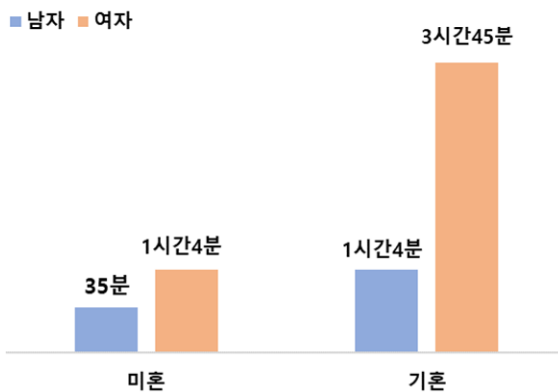
< 평균 가사노동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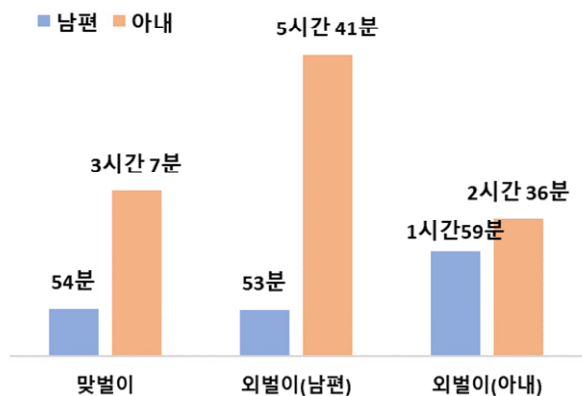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2019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 54분, 아내 3시간 7분이며, 외벌이 부부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많음
- 남편만 취업한 외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 53분, 아내 5시간 41분이며, 아내만 취업한 경우는 남편 1시간 59분, 아내 2시간 36분임

< 혼인상태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



< 맞벌이·외벌이 가구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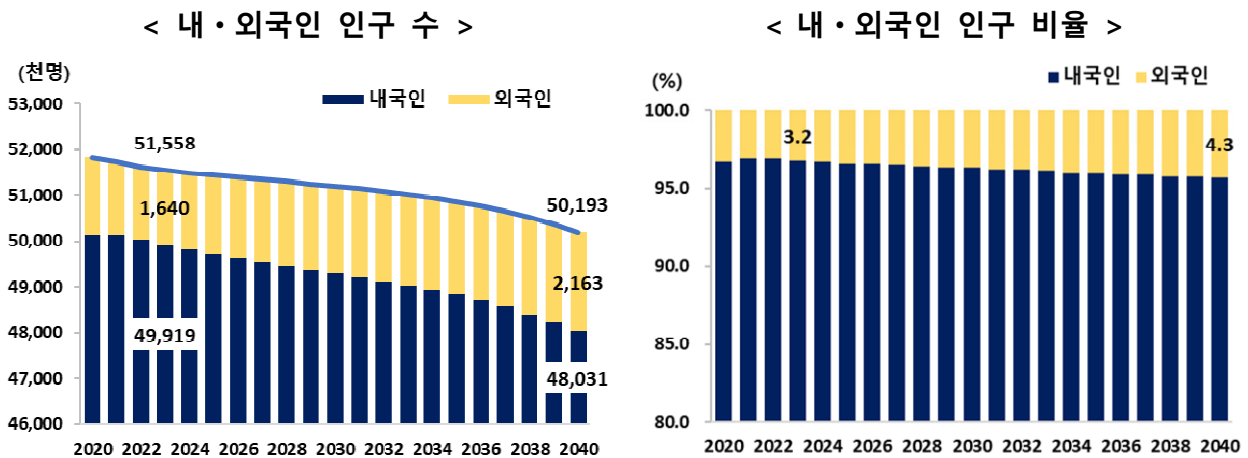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Ⅲ. 외국인

1. 내·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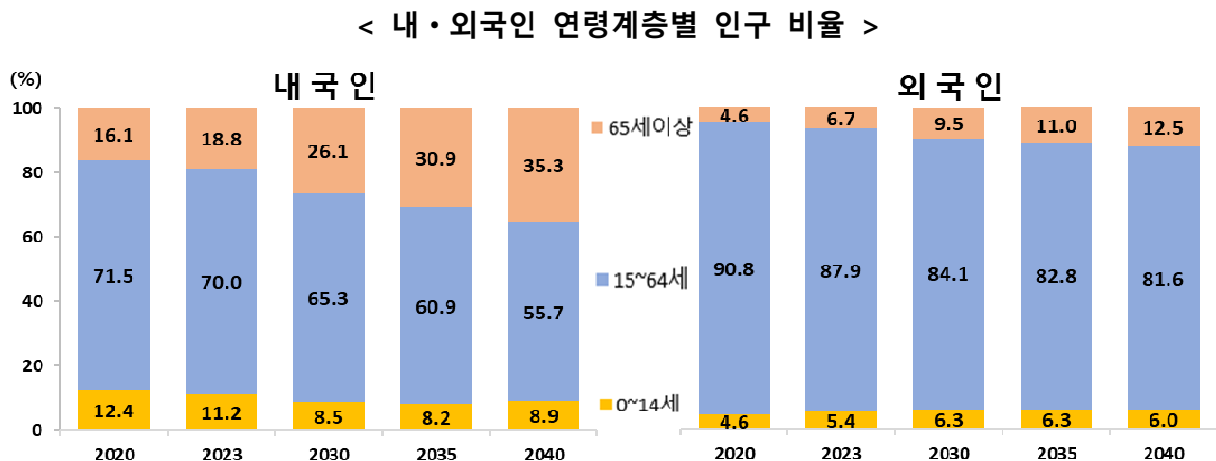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 5,156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내국인 비율은 감소, 외국인 비율은 증가 전망

- 2023년과 2040년 내·외국인 인구와 비율을 보면, 내국인 인구는 감소(4,992만 명, 96.8% → 4,803만 명, 95.7%), 외국인 인구는 증가(164만 명, 3.2% → 216만 명, 4.3%)



출처: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 2023년과 2040년 내·외국인 연령계층별 인구 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 외국인은 유소년인구, 고령인구는 증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함
- 내국인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8.8%에서 2040년 35.3%로 약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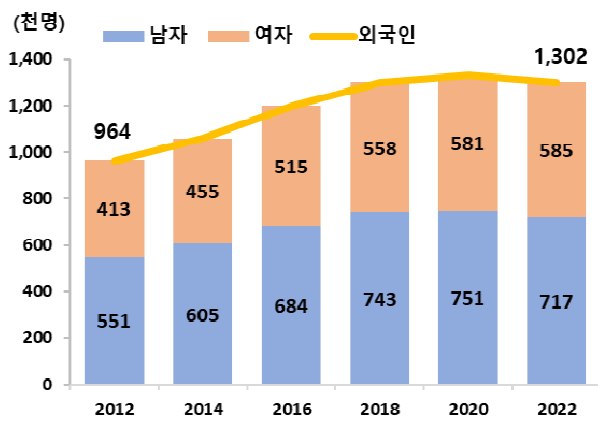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2. 국내 외국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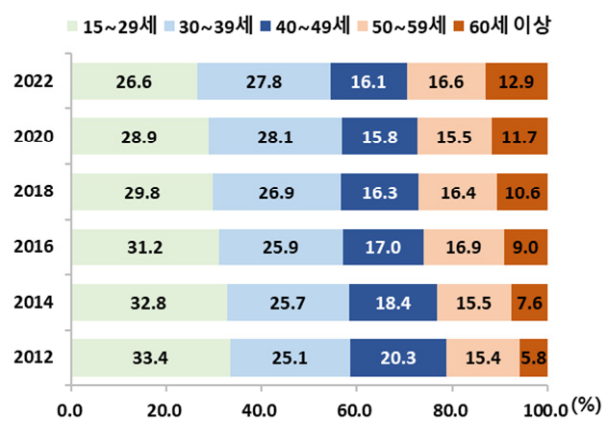
외국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유학생 등의 체류자격에서 증가

- 2022년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 2천 명으로 2012년(96만 4천명) 대비 33만 8천 명 증가(35.1%)하였고, 남자 16만 7천 명, 여자 17만 2천 명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12년 대비 15~29세, 40~49세는 감소, 30~39세, 50~59세, 60세 이상은 증가

< 성별 외국인 >



< 연령대별 외국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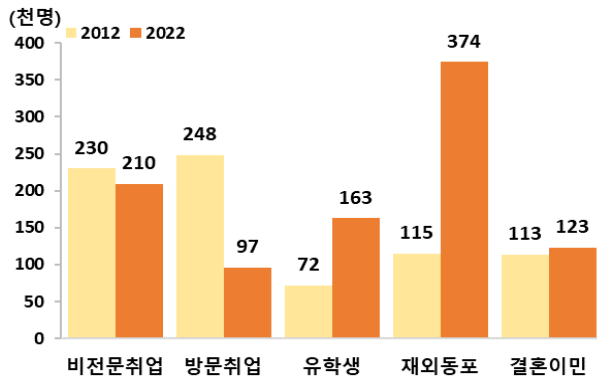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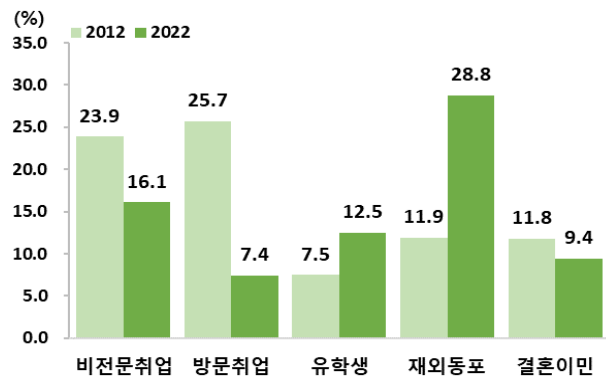
주) 외국인은 15세 이상으로 91일 이상 상주인구

- 2022년 외국인 체류자격별 규모와 비율은 재외동포 37만 4천 명(28.8%), 비전문 취업 21만 명(16.1%), 유학생 16만 3천 명(12.5%) 순임
- 2012년 대비 체류자격별 비율을 보면 재외동포 16.9%p, 유학생은 5.0%p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 18.3%p, 비전문취업 7.8%p, 결혼이민은 2.4%p 감소

< 체류자격별 외국인 >



<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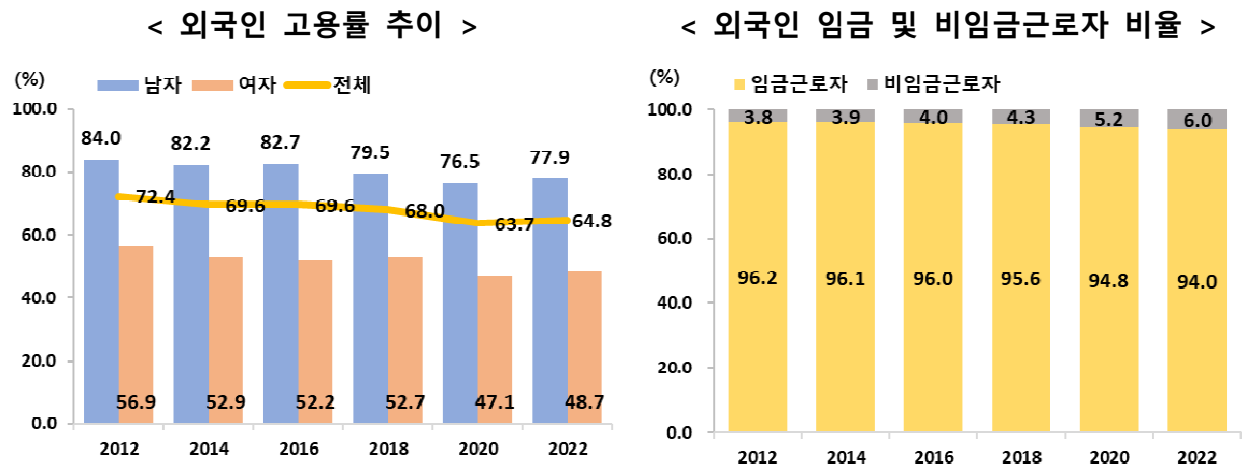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주) 외국인은 15세 이상으로 91일 이상 상주인구,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은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율

3. 외국인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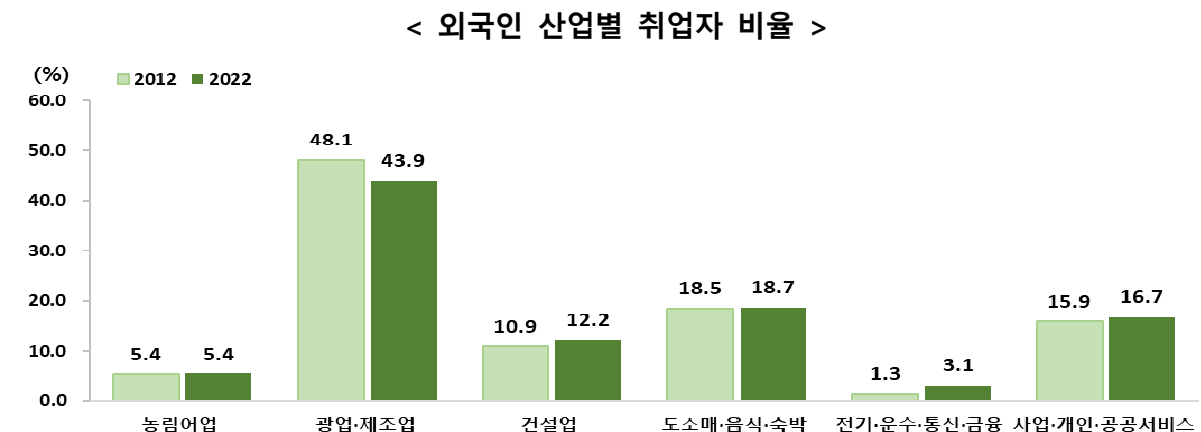
2022년 외국인 고용률은 64.8%,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광업·제조업이 43.9%

- 2022년 외국인 고용률은 전체 64.8%, 남자 77.9%, 여자 48.7%로, 2012년 72.4% 대비 7.6%p 감소하였고, 남자는 6.1%p, 여자는 8.2%p 감소함
- 2022년 외국인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94.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점차 증가세



출처: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2022년 외국인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광업·제조업 43.9%, 도소매·음식·숙박업 18.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7%, 건설업 12.2%, 농림어업 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1% 순임
- 2012년 대비 광업·제조업은 4.1%p 감소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8%p, 건설업 1.2%p,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0.9%p, 도소매·음식·숙박업 0.2%p, 농림어업은 0.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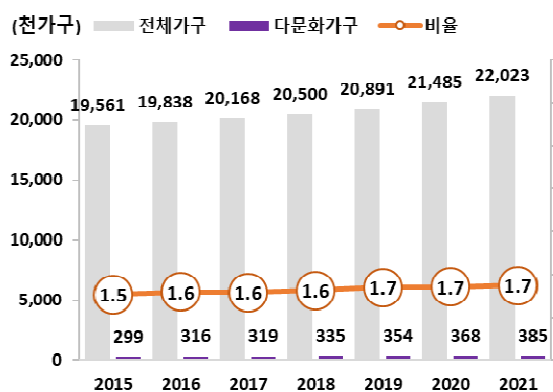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4. 다문화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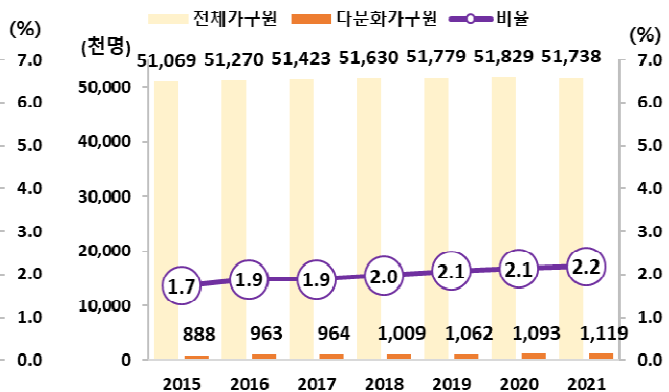
다문화가구는 전체 가구 중 1.7%,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가구원 중 2.2% 차지

- 2021년 전체 가구는 2,202만 3천 가구, 다문화가구는 38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하였고, 다문화가구, 가구원의 규모와 비율은 지속 증가
- 2021년 다문화가구 내 가구원은 111만 9천 명으로, 전체 가구 내 가구원 5,173만 8천 명의 2.2%를 차지

< 다문화 가구 및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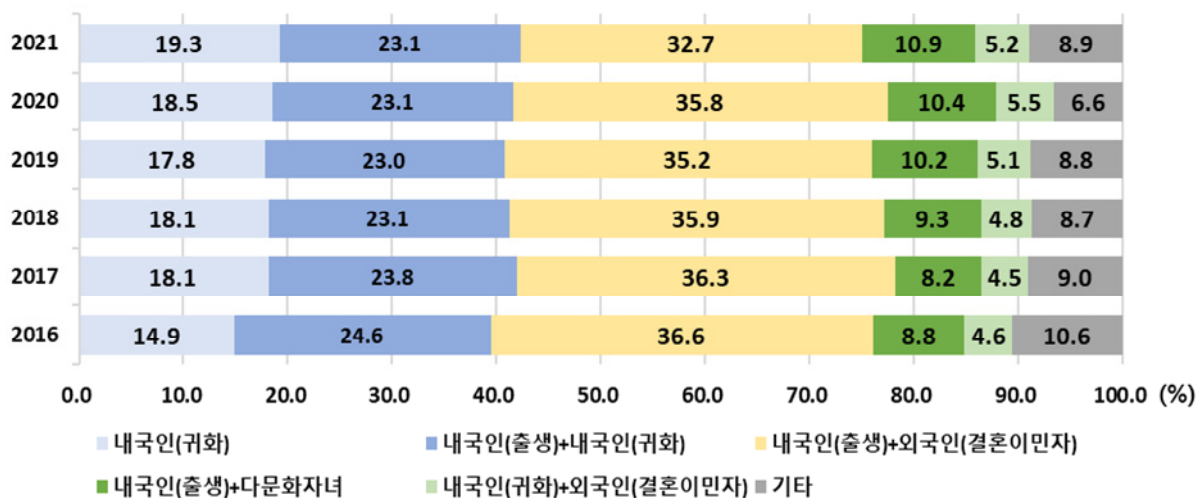
< 다문화 가구원 및 비율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 2021년 다문화가구는 '내국인(출생)과 외국인(결혼이민자) 가구'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내국인(출생)과 내국인(귀화) 가구' 23.1%, '내국인(귀화) 가구' 19.3% 순임
- 2016년에 비해 '내국인(귀화) 가구'는 4.4%p, '내국인(출생)과 다문화자녀' 가구는 2.1%p 증가

< 다문화가구 구성별 비율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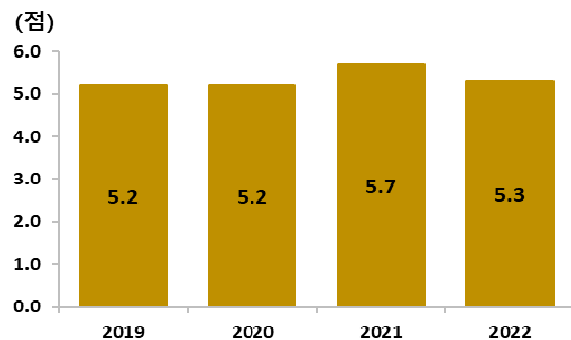
5. 외국인 수용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5.3점(10점기준)이며, 외국인에 대한 수용 정도는 직장동료(42.3%), 이웃(29.8%), 친구(16.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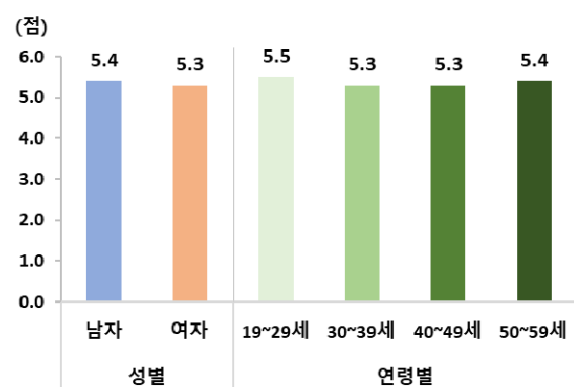
□ 2022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5.3점(10점기준)으로,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성별로는 남자(5.4점), 연령대별로는 20대(5.5점)가 높았음

<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추이 >



< 성별, 연령대별 수용하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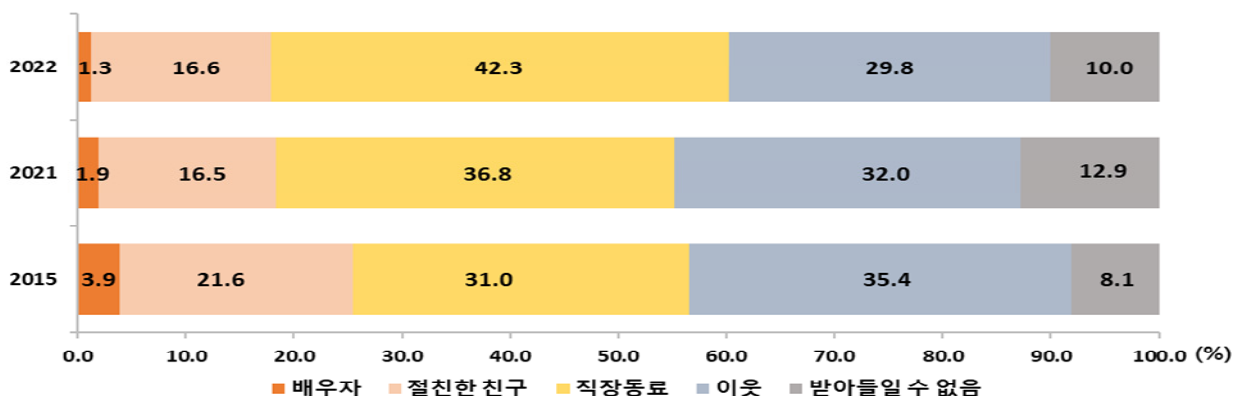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수용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매우 동의한다(10점)의 평균값

□ 2022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별 가능성은 직장동료(42.3%), 이웃(29.8%), 절친한 친구(16.6%), 배우자(1.3%)이며, 2015년 대비 우선 순위가 이웃에서 직장동료로 변동

○ 2022년 받아들일 수 없음은 10.0%로 2015년 8.1%와 비슷한 수준 유지

<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가능성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5개 항목(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1개 항목 선택

[참고] 주요 용어 설명

-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 조(粗)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한 해의 중간(年央)인 7월 1일자 인구
- 혼인경험 여부
: 조사 시점에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 이혼 또는 사별한 경험 여부
- 모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비친족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경제활동참가율
: $(\text{경제활동인구}^*/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중 현재 미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다문화가구

: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대상자: 다문화가구의 가구원 중 내국인(귀화자) 및 외국인(결혼이민자)를 의미
- 내국인(귀화자):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자
-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다문화자녀: 외국인(결혼이민자) 또는 내국인(귀화자)의 24세 이하 자녀
- 기타: 내국인 없이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